

선교 매트리스를 읽고

구본길

TMTC(교사선교회 선교훈련과정)에 참석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좀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선교 매트리스 라는 책을 선택하여 읽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선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깊이는 수박 겉을 핥은 것 같으면서도 묵상을 하면 할 수록 그 깊이가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글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내게 감동이 되었고 동의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보고자 한다.

선교의 본질과 전략은 거의 맨 마지막 3부의 첫번째 주제이다. 이곳에서는 선교의 본질을 먼저 다루었는데 이미 앞에서도 여러번 강조하신 내용이다. 선교의 본질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 즉 방법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첫째, 성육신이다. 성육신적 선교란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구원과 말씀을 보여주고 실체화시켜주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선교 현장으로 내가 깊숙히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지시하거나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 처럼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다.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섬기며 잘 지내는 것이다.

두번째는 회복시는 일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셨다. 연약함이 있는 자들의 그 연약함을 도와 주고 약한 자에게 힘이 되며, 가난한 자 편에서 변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방법이다.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별무리학교 교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는 필요를 살피는 일이라 생각한다. 살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마음을 읽으며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제자를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 또한 함께 사는 것이었다. 가르침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이 또한 선교 전략의 본질적인 방법인 것이다.

나도 별무리학교에서 선생님을 양육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양육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양육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노출 된 상태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차면 그것은 나를 더욱 연단하여 정금 같이 되는 길일 지도 모른다.

네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대신에 학교를 세우는 것을 선교의 본질 속에 넣어 보고 싶다.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책임있게 살아 내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이 독서를 통해서 선교사가 지녀야 하는 태도와 마음 상태, 특히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영 선교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약함의 선교, 함께 함의 선교, 함께 사는 선교, 그들 속에 들어가는 선교 등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선교의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다. 협력하고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해외에서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별무리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